

새봄을 맞아 취업을 원하는 여성과 부업을 찾는 저소득층 주부들을 대상으로 한 사회복지시설의 기술훈련 과정이 일제히 문을 연다.

양재·조리·미용·자수 등 여성 특유의 솜씨를 살릴 수 있는 일을 비롯해 광고디자인·건축설계제도·귀금속 세공·판매사 등 상당한 전문 숙련성을 요구하는 분야까지 다양한 과정이 마련돼 있다.

대부분 특별한 자격요건 없이 여성이면 누구나 배울 수 있고

살 이상 여성 20명을 선착순 모집해 6개월 동안 세공·주조·판금 등을 교육한다. 훈련비는 월 6만원. 건축설계 제도사는 고졸 이상 18~23살 미혼여성 15명을 모집해 4월2일 개강한다. 6개월 과정, 훈련비 월 6만원. 칠보특강은 18살 이상 10명을 대상으로 2개월 동안 훈련한다. 4월12일 개강, 월 2만5천원. 세탁사는 중졸 이상 25~40살 여성 20명 대상. 4월14일까지 모집해 3개월 동안 물세탁·드라이클리닝·얼룩빼기·보일러사용법·수선법 등을 교육

예·분재·등공예·형질공예·영어·일어·염색공예·데코파주·지점토 등이 마련돼 있고 4월9일부터 4개월 동안 교육한다. 모집은 4월2~7일, 월 수강료는 4천원이다. 마포부녀복지관(719-9866)에서는 표구·판매사·가사관리과(간병인·파출부 등) 등도 교육하고 5월9일부터 접수한다. 노원부녀복지관(934-7713)에서도 비슷한 과정을 수시접수한다.

동작종합사회복지관(814-8114)은 서울시내 거주여성을 대상으로 17일까지 미용·양재·한복·봉

취업 희망 주부 기술교육 과정 '풍성'

YWCA등 7곳 도배사·세탁사 취업률 1백%

훈련수당을 지급하거나 취업알선을 해주는 곳도 있다.

최근에는 특히 도배사·세탁사 등이 인기 있고 취업률이 거의 1백%에 이르러 전망도 좋다.

서울 YWCA근로여성회관(804-8751)은 도배사 등 5개 분야 직업훈련생을 모집하고 있다. 도배사는 국졸 이상 19~45살 여성 30명을 4월18일까지 선착순 모집해 3개월 동안 교육한다. 훈련비는 없고 매월 4만5천원의 수당을 지급한다. 세대주일 경우 가족 한사람당 1만원씩을 매월 보조한다.

귀금속 세공사는 18일까지 18

한다. 월 4만원.

서울시 구로부녀복지관(802-0185)은 17일까지 9개 분야 기술교육생을 모집하고 있다.

18~55살 서울시내 거주여성 1천2백44명을 대상으로 4월3일부터 4개월 동안 교육한다. 교육과목은 한복·양재·기계자수·동양자수·수편물·미용·급식조리·광고디자인·도배과 등이다. 수강료는 매월 3천원. 지하철 정기관 35% 할인혜택도 준다. 시설수용자·국가유공자는 무료이고 생활보호대상자에게는 훈련수당과 취업준비금도 지급한다.

부업생활교실에는 꽃꽂이·서

제미싱·홈패션·타자직업훈련생들 각 과목 30명씩 모집한다. 4개월 과정, 훈련비 월 7천~8천원.

남부종합사회복지관(803-3526)은 3월말까지 양재·피부관리·홈패션·지점토 과정 훈련생 각 20명 안팎을 모집해 3개월 동안 교육한다. 훈련비는 월 7천~1만원. 메이크업반은 15일까지 모집하고 2개월 과정, 월 1만5천원.

북부종합사회복지관(934-7711)은 17일까지 도배사 취업훈련생을 모집한다. 3개월 과정, 월 훈련비 1만원. 개량한복교실은 수시접수한다.